

# ‘무연사회(無縁社会)’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족\*

- 히가시노 게이코(東野圭吾)의  
『붉은 손가락(赤い指)』을 중심으로 -

박 수 현\*\* · 윤 혜 영\*\*\*

(e-mail : mymary09@hanmail.net · yun1971@cnu.ac.kr)

##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3. 아키오 가족을 통해 본 무연사회의 가능성 |
| 2. 무연사회의 성립배경 | 4. 가가 가족을 통해 본 유대(絆)의 중요성 |
|               | 5. 나가기                    |

キーワード : 東野圭吾(Higashino Keigo), 赤い指(Red Finger), 無縁社会(Non-bond Society), 無縁死(Unrelated Death), 孤独死(Lonely Death), 家族(Family), 絆(Bond)

## 1. 들어가기

2010년 1월 NHK에서 <무연사회~“무연사” 3만 2천 명의 충격~(無縁社会~“無縁死” 3万2千人の衝撃~)>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혼자 살다가 고독한 죽음을 맞이한 노인들의 삶을 추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방송 직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키워드였던 ‘무연사회’라는 용어는 그 해 신조어·유행어(新語·流行語)<sup>1)</sup> Top 10에 선정되었기도 하였다.

\* 이 연구는 2019년도 충남대학교 연구우수장학금에 의해 지원되었음

이 논문은 제57회 한국일본문화학회 추계국제학술발표대회의 발표문을 수정·가필한 것임

\*\* 주저자,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대학원 일문학 박사과정, 일본현대문학

\*\*\* 공동저자,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1) 자유국민사((自由国民社) 편집부는 해마다 독자 앙케이트를 통해 그 해에 만들어진 말들을 수집하고, 이 중 50개의 후보를 선출한다. 신조어·유행어 대상선고위원회는 그 후보 중에서 대상 및 Top 10을 선정하여 매년 12월 1일에 선정된 말과 관련된 인물·단체에 상을 수여한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무연사의 문제를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는 실제로 소리를 내어 말하기보다 소설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sup>2)</sup>고 언급하고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 1958~, 이하 히가시노)의 『붉은 손가락(赤い指)』(2006, 講談社)<sup>3)</sup>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다.

『붉은 손가락』은 나오키상(直木賞)을 수상한 『용의자 X의 헌신(容疑者Xの献身)』(文芸春秋, 2005) 직후에 발표되어 크게 화제를 모았고, 2006년 『이 미스터리가 대단해!(このミステリーがすごい)』에서 9위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드라마로 방영되는 등 대중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내용은 한 초등학생 여자 아이의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이를 은폐하려는 마에하라 아키오(前原明夫, 이하 아키오)의 가족과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는 형사 가가 교이치로(加賀恭一郎, 이하 가가)와 마쓰미야 슈헤(松宮修平, 이하 마쓰미야)의 가족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본 작품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을 풀어가는 추리물의 일반적인 계보를 잇고 있지만 작품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가 파생하는 간병 및 노인 돌봄 문제를 비롯하여 고부간의 갈등과 이지메(いじめ)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그리고 고독사(孤独死)와 같은 사회문제가 그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살인사건은 이러한 문제들을 노출시키는 계기가 될 뿐이다. 즉 『붉은 손가락』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대 일본 사회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매우 농후하게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가시노의 다른 작품에 비해 본 작품에 대한 연구와 서평은 매우 드문 편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학술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서평의 경우 작가가 “무엇보다도 이것은 가족 이야기”<sup>4)</sup>라고 언급하고 있어 서인지 “부모 자식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sup>5)</sup>이라고 보거나, 가가 부자의 관

2) 別冊宝島編集部(2009) 『僕たちの好きな東野圭吾』、宝島社、p.42.

3) 『붉은 손가락』은 “시리즈 누계 1,200만부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가가 교이치로 시리즈’ 중 7번째 작품이다. 작가는 본 작품과 동일한 제목의 단편을 1999년 『소설현대(小説現代)』 12월호에 게재한 후 단편집 『거짓말, 딱 한 개만 더((嘘をもうひとつだけ)』(2000, 講談社)에 수록할 예정이었으나 단편으로 끝낼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대폭적인 개고(改稿) 과정을 거쳐 2006년 단행본으로 발표하였다.

4) 東野圭吾作家生活25周年祭り実行委員会(2012) 『東野圭吾公式ガイド』、講談社、p.151.

5) 横山俊祐(2013) 「文献探訪Book Review : 文学は優れた建築作品である」 『大阪市立大学大学教育』 Vol.11、大阪市立大学大学教育研究センター、p.49.

계에 집중하여 ‘가가 교이치로 시리즈’ 중 처음으로 가가가 “아버지와의 유대(絆)를 확인”<sup>6)</sup>했다는 평이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이외에 “여자는 무섭다”<sup>7)</sup>는 테마의 작품이라고 보는 평도 있다.

그런데 본 작품에 무연사회 현상의 징후라고 할 수 있는 고독사를 비롯하여 이를 둘러싼 가가 가족의 삶의 방식 및 연이 단절된 듯 살아가는 아키오 가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무연사회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품 속 가족을 통해 작가가 피력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무연사회의 성립 배경

‘무연사회’라는 말은 앞서 언급한 NHK의 특집 프로그램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없는 사회 ‘연이 없는 사회’<sup>8)</sup>를 뜻한다. 이러한 사회가 도래한 원인은 “사회의 변화, 즉 경제적으로는 산업화, 지역적으로는 도시화, 생활적으로는 개인화에 의해 가족을 결합시키고 있던 유대(絆)가 쇠약해지고, 거기에 가족 이외의 혈연(血緣), 지연(地緣), 직연(職緣) 등이 해체”<sup>9)</sup>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연사회가 초래된 배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시작은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지방에서 도시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수반되어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부모와 미혼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이 보편화되는 가족 형태의 변용이 일어났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장기 불황과 결혼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생애미혼율<sup>10)</sup>과 이혼율이 증가

6) INFASパブリケーションズ(2010) 『もっと!東野圭吾-東野圭吾をもっと楽しむための7つの視点』、INFASパブリケーションズ、p.96.

7) 전개주2), 別冊宝島編集部(2009) p.96.

8) NHKスペシャル取材班(2012) 『無縁社会-“無縁死”3万2千人の衝撃-』、文芸春秋、p.1.

9) 森岡清美(2012) 『「無縁社会」に高齢期を生きる』、アーユスの森新書、p.30.

10) “생애미혼율이란 50세의 인구 중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로, 45~49세 미혼율과 50~54세 미혼율을 평균내어 산출한다. 정확히 말하면, 전 생애에 미혼인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50세에 미혼인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해서 집계한 수치”를 말한다. (아라카와 가즈히사·조승미 역(2018) 『초슬로사회-2035년 인구 절반이 솔로가 된다』, 마일스톤, p.29.)

하였고, 여기에 저출산, 만혼화(晩婚化) 등의 현상이 더해져 단신세대(單身世帯)가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단신세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점차 젊은층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실시한 국민생활기초조사<sup>11)</sup>에 따르면 1986년에 18.2%를 차지했던 단독세대의 비율은 2016년에는 26.9%로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2040년에 이르면 전체 가구의 39.3%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는 전망<sup>12)</sup>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촌락에서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며 농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던 일본 사회에서 혈연과 지연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경제성장기에 일본의 기업이 운영했던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 내 노동조합이라는 ‘일본식 경영’ 방식에는 “촌락사회에서 배양된 공동성”<sup>13)</sup> 즉 공동체적 성격이 자리하고 있다. 기업은 사원에게 복지를 제공하며 사원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노사 간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기업은 대졸 신규 일괄 채용 규모를 축소하였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규직 대신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파견 사원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 비율을 확대시켰다. 사원들이 이전에 누렸던 복지 혜택은 상실되었고, 불안정한 고용 신분으로 인해 애사심이 약해지면서 사연(社縁)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혈연과 지연, 사연이라는 일본 사회를 지탱해왔던 관계망의 약화가 무연사회를 초래하였고, 이것이 무연사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무연사는 “혼자서 고독하게 죽어서 시신을 인수해 줄 사람도 없는 죽음”<sup>14)</sup>을 말한다. 이는 “간병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쓸쓸히 죽”는 고독사<sup>15)</sup>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1) 厚生労働省政策統括官(統計・情報政策担当)(2018) 『平成30年国民生活基礎調査(平成28年)の結果からグラフでみる世帯の状況』、厚生労働統計協会、p.16.

12)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人口構造研究部(2018) 『日本の世帯数の将来推計(全国推計)2018(平成30)年推計-2015(平成27)年~2040(平成52)年-』 『人口問題研究資料』 第339号、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p.15.

13) 시마다 히로미·이소담 역(2011) 『사람은 혼자 죽는다- 무연사회를 살아가기 위하여』, 미래의창, p.100.

14) 전계주8), NHKスペシャル取材班(2012) p.2.

15) 2010년판 『고령사회백서』에는 “고독사(고립사)는 아무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그 후 상당기간 방치되는 비참한 죽음”이라고 고독사와 고립사를 병기하고 있다. (이미에(2012) 『일본사회 고령자의 죽음의 문화변용-개인화하는 죽음 ‘고독사(孤独死)’를 중심으로』 『日本学報』 Vol.93, 한국일본학회, p.341. 참조.)

그것은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연이 끊어진 ‘무연한’ 사람”<sup>16)</sup>이라서 사체인수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체를 거둘 수 있는 자격을 혈연에 한하고 있는데, 가족에 의한 인수 거부로 인해 고독사로 취급되어 지자체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일본에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핵가족화가 진행된 1970년대로, 그 무렵 도시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쓸쓸한 죽음이 언론에 보도되면서이다. 1995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 이후 지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가설주택에서 가족을 잃고 혼자 살던 이재민이 고독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문제화 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대도시나 지진 피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의 중·소도시를 비롯한 일본 전역에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다.<sup>17)</sup>

이처럼 고독사는 꽤 오래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였는데, 2010년에 무연사회 관련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대중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NHK 무연사회 프로젝트 취재팀은 17,000여의 시·정·촌(市町村)을 조사한 결과 한 해에 “연간 자살자 숫자에 필적하는 규모”<sup>18)</sup>인 3만 2천명에 달하는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전국을 대상으로 행해진 조사를 통해 알려진 이 결과는 그동안 고독사에 대한 누적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방송 이후 “인간은 원래 죽을 때에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는데 아무에게도 간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쓸쓸하게 저 세상으로 떠나는 불쌍한 사람”<sup>19)</sup>이 고독사한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고령자뿐만 아니라 30, 40대 사이에서도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와 같이 처음으로 수면에 드러난 고독사의 통계와 쓸쓸한 죽음에 공포를 느끼는 ‘무연감(無縁感)’이 점차 확산<sup>20)</sup>되면서 무연사회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심은 고독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붉은 손가

16) 전계주13), 시마다 히로미·이소담 역(2011) p.15.

17) 이미에(2013) 「일본의 고독사 현상과 대책에 대한 과제」 『日本語文学』 Vol.63, 일본어 문학회, pp.352~354. 참조.

18) 전계주8), NHKスペシャル取材班(2012) p.16.

19) 永井広克(2012) 「無縁社会と家族」 『富士国際大学国際教養学部紀要』 第8巻、富山国際大学、p.51.

20) 전계주8), NHKスペシャル取材班(2012) p.233. 참조.

락』에는 고독사 그 자체보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즉 삶의 방식이나 태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것은 가가와 그의 사촌동생이자 합동 수사 중인 형사 마쓰미야의 대화에 잘 드러나 있다. 자신의 외삼촌이자 가가의 아버지인 가가 다카마사(加賀隆正, 이하 다카마사)를 홀로 죽게 할 작정이냐고 묻는 마쓰미야의 질문에 가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의해 결정돼. 그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

“그 사람이라니.”

“따뜻한 가정을 만든 사람은 죽을 때에도 그렇게 임종을 맞게 돼. 가정다운 가정을 만들지 못했던 사람이 마지막에만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생각 안 들어?”<sup>21)</sup> (p.130)

가가의 어머니는 가가가 초등학교 때 가출을 한 뒤 가족과의 연을 끊고 센다이(仙台)에서 홀로 살다가 고독사를 하였다. 어머니의 가출 이후부터 가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에 아버지를 “고독한 노인”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하고, 중병에 걸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는데도 돌보지 않는다. 가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뒤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가의 말은 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한편 작품에서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마에하라 나오미(前原直巳, 이하 나오미)는 뒤뜰린 가족 관계 속에서 고독하게 자랐고, 외로움이 요인이 되어 가스카 이 유나(春日井優菜, 이하 유나)를 살해하고 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키오 가족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21) 「どういふふうにならぬか、どう生きてきたかによって決まる。あの人がそういう死に方をするとしたら、それはすべてあの人の生き様がそうだったから、としかいえない」

「あの人が」

「暖かい家庭を作った人間は、死ぬ時もそのように送り出してもらえる。家庭らしきものを作らなかった人間が、最後だけそういうものを望むのは見勝手だと思わないか」

작품의 원문 인용은 東野圭吾(2006) 『赤い指』 講談社에 의하며 인용자가 번역하였다. 인용문에는 인용 페이지를 기입하였다.

즉, 무연사회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과 작품의 메시지는 아키오 가족 및 가가 가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족의 양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3. 아키오 가족을 통해 본 무연사회로의 가능성

본 작품은 가해자 측인 아키오와 형사인 마쓰미야의 시점이 교차되면서 전개되는데, 마쓰미야의 시선에서 그려지는 아키오의 가족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가족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고부 갈등, 이지메를 당한 아들 문제 등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가족 문제가 쌓여 있다. 그런데 아키오 가족은 이를 ‘회피’하고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

마에하라 마사에(前原政恵, 이하 마사에)는 며느리인 마에하라 야에코(前原八重子, 이하 야에코)와 손자의 이유식에 대한 조언을 계기로 수년 간 심각한 고부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야에코는 나오미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시점부터 시댁과의 연을 끊고 아들과 시부모와의 만남을 차단해버렸다. 아키오의 아버지가 질병을 앓다가 죽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리 슬퍼 보이지 않았다. 제대로 만난 적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다”는 아키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오미는 조부모와 거의 만나지 않고 성장하였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야에코와는 달리 마사에는 며느리의 태도에 대해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데 이런 모습은 동거를 시작한 후에도 지속된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 골절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자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마사에와의 동거를 꺼려했던 야에코는 장기불황으로 인해 집을 마련하기 힘들어지자 마사에가 살던 단독주택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겠다는 계산 하에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허락한 것이다. 긴 세월 쌓인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시작된 동거는 끝내 가족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마사에는 “야에코의 냉담한 태도”, 아키오의 “늙은 어머니를 매우 꺼려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더러운 물건처럼 취급”하는 손자의 모습에 낙담하여 가족이 모두 모이는 유일한 시간인 식사 자리마저 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치매에 걸린 척 연기를 하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린다.

이처럼 심각한 고부 갈등으로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자 아키오는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우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그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키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불화는 세상에 흔히 있는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하고, 귀찮은 일이 생기면 언제나 도망치”는 아키오의 모습은 하나뿐인 아들인 나오미를 양육하는 방식에서도 엿보인다. 나오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심각한 이지매를 겪었다. 선생님의 주의 덕분에 폭력은 면하게 되었지만 이후 나오미는 “졸업할 때까지 쪽 반에서 친구도 없었고,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으며, 무시당”한 채 지냈다. 당시 나오미를 따돌렸던 주동자들이 옛날 일을 말하고 다녀서 중학교 3학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다.

“초등학생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들었던 나오미가 “언제부터인지 아키오에게 감당하기 힘든 존재”가 되었는데 그 전환점은 6학년 때 겪었던 이지매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어 현재까지도 나오미를 괴롭히는 상처로 남아 있게 되는데, 당시 아키오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여기며 오히려 “귀찮은 일”을 만든 아들을 꾸짖었을 뿐이었다. 이때문에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주지 못한 아버지에게 대한 반감이 반항적 태도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오미는 아키오와 마주치더라도 “최대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하고,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면 최소한 짧은 말로 끝내버리”고 한다.

늘 고독한 나날을 지내왔던 나오미는 “제 방에 틀어박혀 식사할 때와 화장실 갈 때 외에는 나오지 않”는 등 가족과도 제대로 된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따라서 자신의 가방에 달린 ‘슈퍼 프린세스(スーパープリンセス)’<sup>22)</sup>의 키홀더를 보고 먼저 말을 걸어온 유나<sup>23)</sup>가 특별한 존재<sup>24)</sup>로 인식되었을 것

22) 작품 속 ‘슈퍼 프린세스(スーパープリンセス)’와 2005년에 닌텐도(任天堂)에서 출시된 ‘슈퍼 프린세스 피치(スーパープリン세스ピーチ, 약칭 ‘슈퍼 프리(スーパープリ))’는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었고, 약칭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같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다.

23) 작품에서 유나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퇴근하는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 혼자서 지하철역으로 마중을 나가기도 하고, “행동적인 여자아이인 듯, 멋대로 어딘가에 간 적이 있”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런 유나의 성향은 능동적인 ‘슈퍼 프린세스’의 피치 공주와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다.

24) ‘슈퍼 프린세스 피치’는 마리오(マリオ)가 납치당한 피치(ピーチ) 공주를 구출해 내던 기존의 스토리와는 달리 피치 공주가 악당 쿠파(クッパ)에게 잡힌 마리오를 구출해내는 능동적인 캐릭터로 등장한다. (대원씨아이, 슈퍼마리오 최신작 발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5103>)

이다. 그런 유나를 왜 살해했는지 묻는 질문에 나오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왜 유나의 목을 졸랐지?”

새파래져 있던 나오미의 얼굴이 급격히 붉어졌다. 눈이 치켜 올라갔다.

모른다고 그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목을 조른 거 아니야?”

“집에 간다고 해서……” (중략)

“피규어를 보여줬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p.261)<sup>25)</sup>

“피규어를 보여줬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라는 발언에서 유나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하는 나오미의 심정과 그 속에 깃든 외로움을 엿볼 수 있다. 가족, 친구 등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어떤 집단 속에서도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나오미는 고독에 사로잡혀 있었고, 결국 이것이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가족 간 갈등에서 눈을 돌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결여되어 “온전한 가정”을 만들지 못한 아키오 가족은 살인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건을 파악한 직후 나오미를 자수시키려고 했던 아키오는 아들이 자수를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을 용서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야에코의 말에 설득되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키오는

012523719249 참조. 검색일 : 2020.01.10.)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많은 피규어를 수집할 만큼 ‘슈퍼 프린세스’의 열성적인 팬인 나오미에게는 먼저 말을 걸어오고, 피규어를 보기 위해 자신의 집까지 찾아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유나가 고독한 자신을 구하러 온 피치 공주처럼 여겨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5) 「なぜ優菜ちゃんの首を締めたのか」

青ざめていた直巳の顔が、急激に紅潮した。目は吊りあがった。

わかんない、と彼は低く呟いた。

「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はないだろ。何か理由があって首を締めたんじゃないのか」

「帰るっていうから……」 (中略)

「フィギュアを見せてやったのに、帰りたいっていうから」

26) 이시이 미유키(石井みゆき)는 유나가 “슈퍼 프린세스 피규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의 핏에 빠져서 비극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방에 배달된 피규어를 보고 유나가 먼저 접근해서 말을 걸었다는 점과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나오미의 컬렉션을 보기 위해 직접 그의 집을 찾아 갔다는 점에서 볼 때 나오미가 유나를 유혹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石井みゆき(2011) 「事件を通じて加賀が問う”家族のあり方”」 『東野圭吾全小説ガイドブック』、洋泉社、p.33. 참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끔찍하고,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을 혐오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악한 생각이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자신들의 미래에 상처를 남기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계산”을 하며 치매에 걸린 줄 알았던 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만다. 그러나 자신에게 죄를 전가하려는 아들 부부의 계략을 알아차린 마사에는 사건 전날 손에 붉은 립스틱을 칠한 것처럼 위장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하고<sup>27)</sup> 이를 눈치 챈 가가 덕분에 결국 나오미가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범행을 저지른 이후부터 후회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줄곧 부모만을 탓하던 나오미는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 진범으로 밝혀진 후에도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길 뿐이다.

“뭐야? 경찰에는 안 가도 된다고 했잖아!” 계단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나오미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이제 다 틀렸다고. 전부 들통 났어……” 야에코가 울고 있다.

“난 몰라, 모른다고. 시키는 대로 했잖아?”(중략)

“엄마 아빠 탓이야. 엄마 아빠 탓이라고!” 나오미가 고함을 친다. (p.250)<sup>28)</sup>

아키오 가족은 외적으로는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평범해 보이는 가족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각자 자신만의 성을 쌓고 살아온 결과 가족 간 고립된 삶을 살았고, “마음의 유대”와 “가족다운 따뜻함”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함께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방법 대신 사건을 은폐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결국에는 모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sup>29)</sup>

27) 피해자인 유나는 금요일에 목이 졸려 살해되었고, 토요일 새벽에 동네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 유기되었다. 살인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는 마사에는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될 위기에 처하자 사건 발생 전인 목요일 날 손가락에 립스틱을 칠한 것처럼 꾸민다. 그런 후에 마사에의 치매연기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출가한 딸인 다지마 하루미(田島春美)에게 연락하여 정원 화분 밑에 숨겨둔 립스틱을 다른 가족들 몰래 가져갈 것을 지시한다. 마사에가 범인이라면 사체의 목 부분에 붉은 립스틱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그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사에는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8) 「なんだよ。警察には行かなくていいっていったじゃねえか」 階段の上から声が聞こえた。直巳の声だ。「だからね、もうだめなの。全部わかつちやったから……」 八重子が泣いている。「しらねえよ。なんでだよ。俺、いうとおりにしたじゃねえか」(中略)  
「てめえらのせいだろ。てめえらのせいだからな」直巳が喚んでいる。

29) 일본 형법 제190조에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또는

그러나 작품은 타인이 아닌 아키오 자신에 의해 살인사건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해결되는 모습을 통해 이들 가족의 미래가 결코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아키오는 버스 정류장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떡을 특별판매 한다고 외치는 점원의 소리에 “무의식중에” 걸음을 멈추고 떡을 구입하려고 할 만큼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이다. 그렇지만 심각한 고부갈등을 모른 척 회피하는 마음과 치매에 걸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사에의 모습에 “점차 어머니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녀에 대한 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키오는 가가가 내민 초등학교 졸업식 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본 후 “당장이라도 쏟아지려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꺾 참”는데, 여기에서 어머니를 향한 아키오의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키오가 전가한 죄로 인해 어머니가 경찰에 연행되기 직전, 지팡이에 달려 있던 이름표를 보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머니와의 추억을 상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아키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수업 시간에 직접 만든 것으로, 마사에의 이름을 새긴 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건넨 의미 있는 선물이었다. 마사에와의 추억 속 물건인 이 이름표는 방울과 함께 끈으로 단단히 묶인 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사에의 곁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아키오는 “은혜를 입은 분께 선물”해도 좋다는 선생님의 말에 따라 어머니에게 이름표를 전했던 그때의 마음을 떠올리게 된다. 소환된 추억으로 인해 “아키오 안의 무언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애써 버텨왔던 무언가가,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 시작”했고, 평생 자신을 아껴온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챈 아키오는 스스로 과오를 깨닫고 사건의 진상을 실토하게 된다.

아키오가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행동을 취한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아키오는 “이런 일이 아닌 다른 일로 의지가 되는 남편이었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나, 나오미의 문제 또한

---

영득(領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살인을 저지른 나오미는 물론이고 사체를 유기하고 이에 가담한 아키오와 야에코 역시 사체유기죄로 최대 3년 간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사에는 모두가 떠난 집에 홀로 남겨질 것이다. (刑法 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140AC000000045#820](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140AC000000045#820) 참조. 검색일: 20.01.28.)

“어떻게든 손을 썼더라면” 이라고 “허망한 후회”를 하던 아키오의 변화를 보면 그가 앞으로 마사에의 아들이자 나오미의 아버지, 그리고 야에코의 남편으로서 가족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4. 가가 가족을 통해 본 유대(絆)의 중요성

가가 부자의 어긋난 관계는 ‘가가 교이치로 시리즈’에서 줄곧 다루어져 왔는데<sup>30)</sup> 본 작품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갈등에 처하게 된 원인이 밝혀져 있다. 그것은 집을 나간 가가의 어머니 때문으로 다카마사의 여동생이자 마쓰미야의 어머니인 마쓰미야 가쓰코(松宮克子, 이하 가쓰코)의 다음 발언을 보면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전략)그때부터야. 그들 부자 관계가 웬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 말이야. 교이치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유가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 (pp.184~185)<sup>31)</sup>

가가는 “남편이나 아버지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게 된 것이라고 여기며 그를 원망하였다. 다카마사는 “얼마나 헛수고를 하고 돌아다녔는가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진다”고 임버릇처럼 말했을 만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집념을 가지고 노력했던 형사였다. 이러한 업무에 대한 성실한 태도와 귀가가 불규칙했던 직업적 특성이 가정을 소홀히 한 원인이 된 것이다. 가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집 근처의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 세 사람이 함께한 유일한 가족사진이라는 점은 이들 가족이 공유한 시간이 극히 적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가의 어머니는 남편이 “일 때문에 계속 집을 비우”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가가가 여름 검도 합숙 훈련을 가서 가족 모두가 집을 비운 어느 날 홀연히 편지만을 남긴 채 집을 나갔다. 다카마사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시기에

30) 村上貴史(2012)「加賀恭一郎を読み解く」『東野圭吾公式ガイド』、講談社、p.209. 참조.

31) 「(前略)それからよ、あそこの父子の仲が何となくぎくしゃくし始めたのは。恭さんは何もいわないけど、おかあさんが家出した理由は伯父さんにあると考えているみたいね。家庭のことを全然顧みない人だったから」

어린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가출할 만큼 그녀에게는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녀는 가출이라는 현실 도피의 방법을 택한 것이다. 가가의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 가가 부자는 갈등 관계에 놓이지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타카(三鷹)에서 혼자 살고 있던 다카마사”의 집에 놀러갔다가 가가와 처음으로 만나 마쓰미야의 시선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당시 마쓰미야는 가가가 다카마사와 “거의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고, 서로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는 것을 보며, 그들이 “싸움이라도 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가가 부자는 아키오 부자와 마찬가지로 어쩌다 볼 일이 있어서 만나더라도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피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됐던 가가 부자의 관계는 가가의 어머니가 가출한 지 수년이 지난 후 센다이에서 날아온 그녀의 부고(訃告) 소식을 기점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가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유골을 찾으러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그와의 동행을 거부한다. 그런데 가가의 센다이행 이후 “그들 부자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다. 즉 작품에는 줄곧 관계가 좋지 않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가가가 센다이에서 도쿄로 돌아온 이후부터 완전히 연이 단절된 것으로 보일만큼 심각한 상태에 치달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가가는 다카마사가 협심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가쓰코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병원을 찾아가지만 아버지에게는 들리지 않은 채 담당 의사만 만나고 바로 돌아가 버린다. 뿐만 아니라 다카마사가 담낭과 간장, 십이지장까지 전이된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원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인데도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병문안을 가지 않는다. 다카마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함께 가자는 마쓰미야의 제안에도 “눈가가 험하게 흐려”질 만큼 부정적인 반응만 보일 뿐이다. 결국 다카마사가 임종을 맞을 때까지 두 사람이 마주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카마사의 보살핌 덕분에 “편모 가정이라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남들처럼 생활”하며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한 마쓰미야는 가가의 매정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표면상으로 볼 때에는 가가가 아버지를 방치하고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매몰차게 외면한 것 같지만, 이것은 아내가 고독사한 사실을 안 이후 가가에게 전한 다카마사의 결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아내에 대한 다카마사의 생각은 가가가 아키오에게 전한 이야기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이 죽은 후 간호를 담

당했던 마사에는 아마도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하는 아키오에게 가가는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는 옆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유대(絆)로 묶여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엇인가 더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런 임종을 맞이하게 하다니 불쌍하다, 이러면서 자신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저런 병이 들었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노인의 내면은 지극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요. 그런 노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본인에게는 중요한 것이기도 할 테니까요.” (p.238)<sup>32)</sup>

가가가 누군가에게 들은 듯한 이야기를 “마쓰미야 쪽을 훑고 보고 나서” 아키오에게 말을 건넸다는 점에서 이 말은 마쓰미야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가가는 아버지가 아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자신을 책망”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쓰미야에게 넘기시 전하고 있는 것이다. 다카마사의 그 의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그가 죽은 뒤에 밝혀진다.

“혼자 살았어. 간병해 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죽었어. 아버지는 그것을 쪽신경 쓰셨어. 죽는 순간에 하나뿐인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어. 그래서 아버지는 정하셨대. 자신도 혼자서 죽겠다고 말이야.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숨을 거둘 때까지 절대로 옆에 오지 말라고.” (p.268)<sup>33)</sup>

32) 「もっと何とかできたんじゃないかとか、あんな最期を迎えさせてかわいそうだったとか、自分を責めるんだそうです。ついにはそれが原因で病気になったりもする」

「うちの母も、それが原因であんなふうになったとおっしゃりたいわけですか」

「それはわからない。ただいえることは、老人の内面は極めて複雑だということです。自分の死を意識しているからこそ余計にね。そんな老人に対して我々が出来ることといえば、彼等の意思を尊重するぐらいしかない。どんなに馬鹿げて見えることでも、本人にとっては大事なことだったりするんです」

33) 「独り暮らしだった。看取ってくれる人もなく、一人で死んでいった。親父はそのことをずっと気にしていた。

다카마사는 바쁜 삶 속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았기에 자신의 아내가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회피하는 형태로 가출을 하였고, 낯선 땅에서 아들도 보지 못한 채 고독사의 형태로 죽은 것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자신 역시 아들과 연이 단절된 듯 살아간다. 그리고 훗날 아들이 함께 하지 않는 곳에서 홀로 죽을 것을 결심한 것이다. 가가는 밤새 병실이 보이는 병원 현관 앞에 “검은 상의를 입고 우두커니” 서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며, 다카마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의 뜻을 존중하며 따른다.

이와 같은 가가 부자의 관계는 작품의 처음과 마지막을 관통하는 장면인 장기(將棋) 대결에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다카마사가 입원한 이후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장기 한판은 겉으로 볼 때는 병상에 누워있는 다카마사와 간호사가 두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가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가 장기의 말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카마사는 자신의 장기 상대가 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가 역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가가 부자는 서로 모른 척하며 대국(對局)을 이어나간다.

다카마사는 간호사가 움직인 계마(桂馬)를 보며 “그런 수로 나왔단 말이지. 생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좀 의외”라고 하며 상대의 생각을 읽기 위해 애를 쓴다. 다카마사는 이 계마를 죽는 순간 쥐고 있었는데 이것을 간호사가 가가에게 건네주자 그는 “아마도 여기에 놓고 싶으셨”을 거라며 죽은 다카마사 대신 말을 옮기고 “아버지의 승리”라고 말한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려고 애쓴 장기 대국을 통해 “가가 나름대로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가의 가족은 겉으로 보기에 가족 간의 연이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이면은 강한 유대(絆)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 5. 나가기

2011년 정기국회 시정(施政) 방침 연설에서 당시 수상이었던 간 나오토(菅直人)는 NHK 프로그램을 통해 이슈가 되었던 “무연사회”와 아사히(朝日)신문에

死ぬ間際、どれほど一人息子に会いたかったらと思うと胸がしめつけられそうになるといってね。だから親父は決めたわけだ。自分も一人きりで死んでいこうとね。俺にはこういったよ。息を引き取るまで、絶対にそばに寄るなって」

연재되었던 “고족(孤族)”의 문제를 언급하며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맹세”<sup>34)</sup>했다. 이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섭하는 사회’ 특명 팀(‘一人ひと)を包摂する社会’ 特命チーム)”을 만들어 정부차원에서 고독한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 일본 사회에서 무연사회 현상은 좌시할 수 없는 큰 문제로 자리 잡았다. 히가시노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이슈가 되기 전부터 무연사회에 대해 고민하였고, 무연사회 현상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홀로 외롭게 죽는 고독사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죽음을 초래하게 된 인간관계 및 삶의 방식과 태도 등에 주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연사회’라는 키워드로 작품 속 두 가족에 대해 고찰해 본 결과 아키오 가족은 대가족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요즘 3대가 함께 사는 지극히 평범한 가족으로 조형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구성원 모두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이를 회피하면서 제각각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살인사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어린 아들의 죄를 부부가 합심하여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패륜을 저지르는 형태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키오가 잊고 있었던 어머니와의 인연의 끈을 확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 그의 변화를 통해 절망적으로 보이는 아키오 가족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가가의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가출하면서 가족 간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러나 가가 어머니의 고독사를 계기로 가가 부자는 서로를 이해하며 유대를 회복하기에 이른다.

레와(令和)시대 첫 장편소설인 『희망의 실(希望の糸)』(2019, 講談社)에도 가가와 마쓰미야가 등장하는데, 히가시노는 간행에 앞서 독자들에게 “끈질기지만 유대(絆)의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니까요”<sup>35)</sup>라고 밝히고 있다. 『붉은 손가락』에도 ‘絆’ 또는 ‘繫’ 등의 단어가 매우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시련을 이기고 끈끈한 유대를 형성한 가가 가족뿐만 아니라 연이 무너진 듯 보이는 아키오 가족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무연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 및 유대라는 것이 두 가족을

34) 政府は「無縁社会」や「孤族」を救えるのか (<https://www.newsworldjapan.jp/column/ikeda/2011/01/post-280.php> 참조 검색일: 2020.2.20.)

35) 【7/5発売】東野圭吾令和初の長編小説『希望の糸』担当編集者はどう読んだ? (<http://hon-hikidashi.jp/enjoy/87608> 검색일: 2020.01.02.)

통해 피력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시마다 히로미·이소담 역(2011) 『사람은 혼자 죽는다- 무연사회를 살아가기 위하여』, 미래의창, p.15.
- 아라카와 가즈히사·조승미 역(2018) 『초슬로사회-2035년 인구 절반이 슬로가 된다』, 마일스톤, p.29.
- 이미에(2012) 「일본사회 고령자의 죽음의 문화변용-개인화하는 죽음 ‘고독사(孤独死)’를 중심으로」 『日本学報』 Vol.93, 한국일본학회, p.341.
- \_\_\_\_\_(2013) 「일본의 고독사 현상과 대책에 대한 과제」 『日本語文学』 Vol.63, 일본어문화회, pp.352~354. (DOI: 10.21792/trijpn.2013..63.018)
- 石井みゆき(2011) 「事件を通じて加賀が問う“家族のあり方”」 『東野圭吾全小説ガイドブック』、洋泉社、p.33.
- 厚生労働省政策統括官(統計・情報政策担当)(2018) 『平成30年国民生活基礎調査(平成28年)の結果からグラフでみる世帯の状況』、厚生労働統計協会、p.16.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人口構造研究部(2018) 「日本の世帯数の将来推計(全国推計) 2018(平成30)年推計-2015(平成27)年~2040(平成52)年-」 『人口問題研究資料』 第339号、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p.15.
- 永井広克(2012) 「D」 『富士国際大学国際教養学部紀要』 第8巻、富山国際大学、p.51.
- 東野圭吾作家生活25周年祭り実行委員会(2012) 『東野圭吾公式ガイド』、講談社、pp.151~152.
- 別冊宝島編集部(2009) 『僕たちの好きな東野圭吾』、宝島社、p.42.
- 村上貴史(2012) 「加賀恭一郎を読み解く」 『東野圭吾公式ガイド』、講談社、p.209.
- 森岡清美(2012) 『「無縁社会」に高齢期を生きる』、アーユスの森新書、p.30. (DOI: doi.org/10.4234/jjofffamily sociology.25.84)
- 横山俊祐(2013) 「文献探訪Book Review:文学は優れた建築作品である」 『大阪市立大学大学教育』 Vol.11、大阪市立大学大学教育研究センター、p.49. (DOI: doi/10.24544/ocu.20171218-117)
- INFASパブリケーションズ(2010) 『もっと!東野圭吾-東野圭吾をもっと楽しむための7つの視点』、INFASパブリケーションズ、p.96.
- NHKスペシャル取材班(2012) 『無縁社会-“無縁死” 3万2千人の衝撃-』、文芸春秋、p.233.  
<http://hon-hikidashi.jp/enjoy/87608> (검색일 : 2020.01.0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05103012523719249> (검색일 : 2020.01.10.)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140AC0000000045#820](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140AC0000000045#820) (검색일 : 2020.01.28.)  
<https://www.newswweekjapan.jp/column/ikedada/2011/01/post-280.php> (검색일 : 2020.02.20.)

논문 투고 일자 : 2020. 02. 29.
논문 심사 일자 : 2020. 04. 24.
게재 확정 일자 : 2020. 04. 24.

---

 <要旨>
 

---

 「無縁社会」の観点から見た家族  
 — 東野圭吾の『赤い指』を中心に—

朴秀現・尹恵暎

本研究は、2010年に社会的に大きな話題となった「無縁社会」というキーワードと、作家が普段から多くの関心を持っていた「家族」に注目し『赤い指』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まず、表向きにはとても平凡に見える昭夫の家族は深刻な嫁姑の葛藤や直巳のいじめなどの問題を抱えていたが、これを回避したままそれぞれ寂しく暮らしていた。このような問題が殺人事件を通じて全面的に浮上し、結局明夫は事件を隠へいしようと認知症にかかったと思いき母親に罪を転嫁して明夫の家族はばらばらになる運命に処せられる。加賀の父もまた仕事のため家族の面倒を見ず、彼の妻は幼い息子を残したまま家出をしてしまう。その後、父子の関係が悪化し、互いに他人のように生きていくことになる。

しかし、明夫は最後に母親との縁を確認し、自分の罪を告白した。加賀の家族もまた母親の無縁死以降、お互いを理解するようになる。その後、加賀の父は自分の人生を反省し、妻を理解する気持ちで彼女に似た形で死ぬことを決意し、欠損家庭だった松宮の母子の面倒を見ながら新たな縁を取り結ぶようになる。加賀の父の変化は今後、明夫の人生にも変化が湧き得るという可能性を内包しているといえる。

作家は無縁社会が注目する孤独死そのものより、その形で死ぬしかない原因、つまり生き方や態度を家族を通じて提示しているが、ここで最も重要なのが人間関係の回復または絆の回復である。

 A family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unconnected society”  
 — Focusing on 『The Red Finger』 by Higashino Keigo —

Park, Soo-Hyun · Yun, Hye-Young

This study looked at the keyword “unconnected society” which became a major topic of conversation in 2010 and the “family” which the author of 『The Red Finger』 had been interested in. In the novel, Akio’s family, who looked so ordinary on the surface, had problems such as severe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nd bullying; the family, however, continues to carry on, isolated and in denial. but they avoided these problems and lived in loneliness. After these problems have been revealed through the murder case, Akio is punished for putting the blame for the crime on his mother, who pretends to be suffering from dementia to cover up the offence. Kaga’s father also doesn’t take care of his family for work and his wife leaves home left her young son. After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 and son worsens, and they go their separate ways. In the end, however, Akio confirms his relationship with his mother and confesses his guilt, while Kaga and his father begin to understanding each other after his mother’s death. After that, Kaga’s father reflected on his life and decides to die, like his wife, in the spirit of understanding her, but instead, he starts to take care of another broken family, Matsumiya’s mother and children to create a new relationship. Kaga’s father’s change may include the possibility that Akio’s life will be changed in the future. Through two families, author presents reason to live, ways of living, and attitudes rather than just a lonely death, which society is not interested in,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restoration of relationships.